석학들, 소통으로 불교 대중화 견인한다

붓다나라, 2월 26일 첫 대중강연…'깨달음' 주제로

이중표, 정영근, 양형진 참여
발제 후 질의응답, 토론 진행
"상호 소통하며 불교 알릴 것"
학점제 열린불교대학 운영 중
불교사상, 초기불교, 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 강의 수강 가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붓다나라 열린불교대학 대중강연 참여 교수진. 사진 왼쪽부터 이중표 붓다나라 대표, 정영근 열린불교대학장, 양형진 고려대 반도체물리학부 교수.

한국불교 석학들이 불교 대중화를 위해 거리로 나왔다. 대중과 소통하며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하기 위해서다.

불교신행공동체 붓다나라 열린불교대학은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첫 대중 강연 '불교로 대중과 소통하다- 첫 번째, 깨달음에 대한 담론'을 개최한다.

대중 강연은 발제 강의와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발제는 열린불교대학의 교수진들이 담당한다. 근본불교 연구로 세계적 명성을 지닌 이중표 붓다나라 대표(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붓다는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발표하며, 동양철학 전문가인 정영근 열린불교대학장(서울과학기술대 명예교수)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한다. 과학과 불교의 접점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는 양형진 고려대 반도체물리학부 교수는 '현대물리학에서 본 연기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영근 학장은 "불교 경전은 굉장히 방대하다. 그러다 보니 불교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다양하다. 그럼에도 무엇이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는 적은 편"이라면서 "그래서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중표 대표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우선 교수진이 각 30분 발제를 하고 청중과 무차별로 질의응답하고 토론하는 것이 이번 강연의 진행 방식"이라면서 "발제자 각자가 자신이 가진 불교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 일반 대중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형진 교수는 "빨간색 사과가 있는데 우리가 빨간색을 인지하는 것은 뇌의 자극을 통해 만들어진다. 본디 빨간색은 존재하지 않는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은 재주가 많은 화가'라고 한다. 우린 그 마음이 그린 세상에 사는 것"이라며 "과학을 부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 이해한다면 새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 같은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붓다나라는 전남대에서 퇴직한 이중표 대표가 2014년 시작한 '근본불교연구회'가 확대돼 설립됐다. 현재 서울과 광주, 부산, 대구, 울산에 법당을 운영하며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산하 열린불교대학은 불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2022년 2월 22일에 강의를 시작했다. 교수진으로는 최연식 동국대 교수(불교사), 조원경 시선원 원장(불교명상), 조명화 前 서원대 교수(불교문화) 등 전문 석학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표 대표는 "사찰의 불교대학과는 다르게 학점제로 운영된다. 규정학점을 취득하면 졸업장이 수여된다"면서 "전 과목은 온라인 수강이 가능해 언제 어디서든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학금 24만원만 내면 평생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강좌를 업데이트할 예정인데, 평생회원인 졸업생들도 수강이 가능하다. 우리 불교대학의 강의 콘텐츠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충실하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대중과의 소통을 시작한 붓다나라는 서울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 순회강연을 계획 중에 있다. 정영근 학장은 "깨달음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진행하려 한다. 주제는 대학 교수진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주제가 결정되면 붓다나라 지역법당을 순회하는 강연을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붓다나라의 동영상 강의 콘텐츠를 20분 내외로 압축하는 소품 강의도 제작해 대중에게 소개하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이중표 대표는 "요즘 현대인들은 긴 강의를 듣는 것을 어려워한다. 기존 강의를 줄인 20분정도의 미니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붓다나라 열린불교대학의 대중강연은 선착순 300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신청은 붓다나라 홈페이지(https://www.buddhanara.or.kr/2023-public-talk)에서 가능하다. 문의(010)6374-6396

로터스월드, 미얀마 사원학교 조성 나선다

동산불교대 탁발봉사단과 MOU
다목적 교육관 · 화장실 조성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가 동산불교대학 미얀마 동자승 탁발봉사단(단장 이종현, 이하 탁발봉사단)과 미얀마 양곤 지역 지뺑왜 사원학교(Zee Pin Wae Monastery School)에 다목적 교육관 및 화장실을 조성하기로 했다.

로터스월드와 탁발봉사단은 2월 6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12월까지 조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탁발봉사단은 로터스월드에 5700만 원을 전달하며 사원학교의 교육시설 조성을 응원했다.

이날 협약을 한 탁발봉사단은 동산불교대학의 재학생들로 구성된 봉사모임으로 약 130명으로 구성됐다. 탁발봉사단은 지난 2017년 6월 미얀마 바간 지역 성지순례를 진행한 뒤 조직, 미얀마 동자스님의 탁발 지원을 결의하고 십시일반 후원금을 모아 미얀마 지원을 계획했다. 이후 수차례 미얀마 아동들을 위한 식비를 지원했으며 내부 협의를 거쳐 탁발이 아닌 미얀마 사원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진행을 잠정 연기했었다. 미얀마 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자 로터스월드와 협의를 거쳐 양곤 지역의 지뺑왜 사원학교의 다목적 교육관과 화장실 조성 지원을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탁발봉사단의 지원을 받게 된 지뺑왜 사원학교는 미얀마 양곤 레구(Hlegu Township. Yangon, Myanmar)지역에 위치한다. 유치원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279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 학생 대부분이 레구 지역의 빈곤가정 출신이며 15명의 고아와 59명의 기숙생들도 함께 생활하고 있다. 또한 동자스님 28명과 스님 6명도 사원학교에서 생활하며 수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지뺑왜 사원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교육 시설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교실이 부족하고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시설도 전무해 교실과 도서관으로 복합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교육관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자 기숙사에 거주하는 여학생용 화장실 역시 부족해 신규 조성이 필요한 상태다.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은 "다목적 교육관이 설립된다면 향후 고등학교 과정 설립을 추진 중인 지뺑왜 사원학교의 학생 수용능력이 크게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로터스월드는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이자 아시아 불교국가에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빈곤퇴치를 위해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02)725-4277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 KB카드, 올해도 책가방 지원

2월 9일, 전국 2041명에 가방세트
진우 스님 "더 많은 지원 하겠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이 KB국민카드와 함께 올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전국 예비 초등학생들에게 책가방과 학용품 선물세트를 선물했다.

KB국민카드(대표이사 이창권)는 2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예비 초등학생 책가방 보내기' 사업 기금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올해 조계종은 262개 기관을 통해 2041명에게 책가방과 보조가방, 학용품 선물세트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상자로 포장, 택배로 자택 배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이웃종교인 개신교 목사와 선교사 자녀 20명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아름다운 동행 측은 "평소 불교의 사회적 소통과 역할을 강조해 온 진우 스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이날 전달식에서 이창권 대표이사에게 "민간기업에서 꾸준히 보시행을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불교계에서 소외이웃에 더 많은 환원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권 대표이사도 "품질 좋은 가방과 학용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사노위, 159명 희생자 기리며 159배

2월 6일 서울시청 추모공간서
이태원 희생자 극락왕생 기도

"159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절합니다." "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의 회복을 위해 절합니다."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며 절합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 위원 스님들이 이태원 참사 100일을 추모하며 설치된 분향소 앞에서 희생된 159명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159배를 올렸다.

2월 6일 서울시청 앞에서 봉행된 이날 기도회에는 6명의 스님들이 유가족, 시민 100여 명과 함께 영정 앞에서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추모공간 마련 등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길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사노위는 2월 4일, 유가족들과 함께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행진에 동참하기도 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함께 희생자들의 영정을 들고 녹사평역 인근 합동분향소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을 지나 서울시청까지 행진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이어 100일 시민추모제에 동참, 4대 종교인들을 비롯한 시민들과 추모기도를 이어갔다.

임은호 기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